



이준길 씨는 ... 1981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해 2007년 서울교대를 졸업했다. 2003년 2월 정토회 상근 자원활동가로 입문해 북한 식량난을 알리기 위해 희망플래너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북한 소식을 알리는 유일한 블로그로 인정받아 2008년 다음블로거 특종상을 받으면서 파워블로거로 급부상했으며 2011년에는 다음블로거 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군복무 시절 군종병으로 법학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힘겨워하는 군인들을 위해 전역후 2011년 <힘내라 청춘>을 법문 포켓북을 제작해 군사살해방캠페인을 벌였다. 2012년 평화재단 청춘콘서트 미디어팀장을 거쳐 현재 2013년 정토회 온라인위원회 미디어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역을 해 전국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2011년 6월 군인들을 위한 법문집 <힘내라 청춘>이 나오게 됐어요" 이 책은 군복 앞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북 사이즈로 제작, 군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정토회는 <힘내라 청춘> 책 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2만여권이 군부대로 보내졌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매진

이렇게 전역을 한 그는 다시 온라인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그가 군대에 간 세월동안 온라인 환경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다. "그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또 변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세상은 블로그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바뀌었고 이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2012년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300회 강연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스님 말씀을 요약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했죠."

이후 2012년 말 모바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들어간다. 봉사자들로 운영팀을 꾸려 '희망편지' 앱을 개발, 정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마음나누기 등을 볼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초창기 정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배포되었지만 확대 재생산 되면서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35만 명이 희망편지를 받아보고 있다고. "희망편지는 매일 1회씩 업데이트되는데 하루에 500~600명에게 확산돼요. 또한 다음 블로그에서도 이 내용을 연재하면서 메인화면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코너가 되었어요. 현재 희망플래너 다음 연재는 1만3천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륜스님의 법문 영상과 오디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 하루 조회수는 7만명에 달하고, 팟캐스트 오디오는 5만명이 다운로드 한다. 이런 성과는 즉문즉설이라는 좋은 콘텐츠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 씨는 강조한다. "초창기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북한식

량난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전달자 역할이었죠. 그런데 스님의 강연 현장을 따라 다니며 현장 소식과 법문을 올리다 보니 즉문즉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문즉설은 치유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들으면 힐링이 되니 대중들이 좋아하죠. 저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이를 잘 편집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 좋은 콘텐츠를 잘 가공해 전달해주면 확산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가 즉문즉설 현장 내용으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다. "스님 말씀에 웃고 웃고 박수 치고 하는 대목의 포인트를 잘 포착해 글을 쓰면 인기콘텐츠가 될 확률이 높죠. SNS 포교는 좋은 콘텐츠와 가공자 전달자 이렇게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안정된 직장도 달콤한 청춘의 향연도 접어두고 나누는 삶으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한 그는 자신의 청춘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람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을 알려나갈 것이라는 이준길 씨. 올 하반기부터 전국 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희망플래너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그는 SNS 포교를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토회 역시 미디어홍보국 등을 개설 향후 인터넷 방송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 씨 또한 그간의 경험을 여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매일 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지극한 3배를 올린다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마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면 이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딱 그만큼 일 했겠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발원으로 자발성에 기초하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노하우를 쌓아발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린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글=정혜숙 기자



군법당 법륜 스님 즉문즉설 강연 후 군장병들과 기념촬영



군인들을 위한 포켓 법문집 <힘내라 청춘>

전법일기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는 것일까

나의 인도성지순례기(1)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7명의 불자들과 함께 홍콩을 거쳐 거의 열두시간의 시간을 지나 도착한 곳은 델리. 델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비행기로 바라나시로 향했다. 우리의 처음 순례지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다. 먼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 옛날에 같이 수행하던 다섯 동료들을 찾아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부처님을 맞이했던 곳을 기리는 영불탑을 참배했다.

주변은 공원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차분하고 아름답다. 흰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스리랑카인들이다. 2500년 전 평화로운 들뜬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니 환희심이 벅차오른다.

다시 버스를 타고 초전법륜을 굴리신 녹야원으로 갔다. 우리는 합장을 하고 줄지어 들어갔다.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리신 자리에 다메코 스투가 웅장하게 서있다. 세계의 여러 불자들이 참배를 하고 나름대로의 기도를 한다. 우리도 자리를 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당시의 광경을 만난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할까? 이번 인도성지순례에 인연된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인연이다. 딸의 간청에 의해 온 엄마, 엄마의 강요에 의해 함께 온 딸, 언니를 따라 온 동생, 아빠의 권유에 온 아들, 친구의 권유에 이끌려 온 친구, 다들 여러 가지 사연들로 함께한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한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을뿐.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얻고자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 성지순례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림 · 박구원

탑 앞에서 잠시 선정에 들어본다. 어느새 해가 누워있어지고 나뭇가지에 새소리들이 커진다. 우리는 승원을 돌아 나오기로 했다. 담장 넘어 사슴동산에 사슴들이 순진한 눈망울로 이방인들을 바라본다. 돌아오는 길에는 걸인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며 돈을 구걸한다.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 않은 시커먼 맨발의 아이들, 그리고 처량히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 녹야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은 걸인 아이들이다.

마음이 착잡하다. 만일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라고 하실까? 아니면 가이드처럼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실까?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는 것일까? 이것은 나에게 커

다란 화두다.

선원을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리 크지 않고 작은 표포당인데도 얻으려 오는 걸인들이 종종 있다. 한번은 좀 짙어 보이는 남자가 왔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쌀을 얻으려 왔다는 것이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간청한다. 마침 겨울이 지나갈 길목이라 혹시 쌀이 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kg을 주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능력 따라 베풀어라. 한 몸이라 생각하는 큰 자비가 참다운 보시일세.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真布施)"

내가 찾아다니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직접 오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사람은 아주 기뻐하며 떠났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서 그 사람이 또 왔다. 당시에는 쌀이 많지 않아서 작은 봉지 하나를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이 이상했다.

"스님,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것밖에 안 줘니까" 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그의 눈빛은 쌀을 받은 감사함보다는 조금 주었다는 원망에 가득차 있다. 순간, 황당했다. 화가났다.

"아니, 제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하나요? 쌀이 많지 않아서 조금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것도 가져 가지 마세요" 했더니 아주 불만이 많은 얼굴로 쌀 봉지를 들고 떠났다.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kg의 쌀은 그의 분에 넘치는 것이었을까? 내가 그를 망친 것은 아닐까? 순례동안 이 질문은 나의 뇌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자주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우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알고 보면 괜찮은

나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마가 글 256쪽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들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우와 함께 화제가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아우처우원의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